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9호 【루게 제25202호】 주제 105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감 사 문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수격멸의 의지로 조국보위에 탄원한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지난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여 극도로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미쳐달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가차없이 정벌해버릴것을 선언한 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부대를 열렬히 지원하였습니다.

나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원수격멸의 의지로 열혈의 심장들을 뒤흔들고 조국사수, 혁명보위에 용약 단원해나선 우리의 미더운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경례를 보냅니다.

준엄높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려보려는 적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활화산같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무자비한 천벌을 안기는 성전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은 당중앙만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위대한 조선인민, 정의의 사수합이라면 피어린 전쟁도 죽음도 불사하며 원수들을 요정 내고야마는 혁명적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의 파사로 됩니다.

영웅조선의 장한 아들딸들인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자마자 전국각지에서 모임을 열고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토로하였습니다.

대학생들과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너도나도 떨쳐나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총대를 짊어잡을것을 맹세하였으며 공장과 농촌의 제대군인들은 물론 수많은 당일군들과 청년일군들도 인민군대에 복대시켜줄것을 열렬히 청원하였습니다.

당중앙을 보위하는 오늘의 예쁜이가 되겠다고 하며 대학으로의 길도 마다한 17살의 고급중학교 녀학생들, 어리석게도 우리 공화국의 《제제봉괴》를 꿈꾸며 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오는 원수들과 피의 결산을 하고 야망했다는 경심을 인민군대입대, 복대원천서에 새긴 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들은 당과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화같은가를,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무겁게 분출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온 나라 청년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속에서 발원된 폭발적인 참군열과 그들의 복수결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처럼 혁명열, 애국열에 불타고 불의의 추호도 용서치 않는 훌륭한 청년들, 혁명동지들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느끼며 다시금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만군인이 당중앙프락에 운명의 퍼즐을 잇고 사는것은 등서고급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 없는 조선의 진보습이고 원수들은 백번 죽어도 이해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생리이며 당과 군대와 인민이 철동같이 동원 강령의 혁명적단결, 바로 이것이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우리의 최강의 힘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원수들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배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원수들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하나 가르막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 인민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키우신 영웅적인 우리 인민은 조국이 무엇이고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떤것이며 혁명의 최고존엄을 지키고 자기의 만복을 쫓아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고있으며 열혈의 심장과 불같은 무장으로 당과 수령의 행도를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을 이끌어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은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총렬기, 열혈찬원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총동원전에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서야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과 국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인 남조선피괴들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혁명군대의 노호한 불세례로 적들의 야성을 완전소탕해버리고 강성변영하는 통일조선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갈할 환희로운 진송의 날을 안아와야 합니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지못하고, 불을 붙여온 영웅적인 우리의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강령의 청년대군을 비롯한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반미, 반피괴계급의식의 서슬무른 캉캉을 버리며 치솟는 분노를 최고의 분발로 전환시켜야 하였습니다.

근로청년들과 학생들은 일터와 학원에서 인민군대와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전례없는 로력투쟁과 불꽃 튀는 학습전투를 벌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최상의 성과를 달성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동원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전투와 함께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제지들을 새긴 총정의 70일전투 기록장을 안고 승리의 5월을 땀땀이 맞이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의 화력을 풍세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이대고 전당파 온 사회를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의로 힘있게 불타일으킴으로써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출되고 새로운 영웅적투쟁기풍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당중앙프락에 언제나 마음과 정을 잇고 사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이 우리 당이 안겨주고 키워준 불같은 정신력과 자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준엄한 역사의 도전을 과감히 이겨내며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준엄과 위업을 만방에 높이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5 (2016)년 2월 27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별 앙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지된 나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께서 축전을 보내주신것은 형제적단결과 혁명적우정을 과시한것으로서 내가 혁명위업을 계속 명도하여 사회주의목표를 확고히 점령할수 있도록 떠미는 커다란 고무적임으로 됩니다.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전강하고 행복하신텐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양 위 라 쩌

2016년 2월 15일

비엔티안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네 팔전국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네 팔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0일 까 드만두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네 팔의 각계 인사들과 조선인민군의 원선 및 편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전 내팔장부 수상 미다브 꾸미트 내팔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제,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망라하여 활동할것을 공서 조국의 자주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인베트뉴스통신, 로씨야 24TV방송, 연베트TV방송, 멘드르TV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신화매일진진》, 《메이징일보》, 중앙TV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필리핀 《연진》, 안바신 《어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미》, 이란의 일나통신과 나이세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공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라네트홈페이지, 슬로벤스키의 인라네트홈페이지 kkt.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김정은명도자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절묘비행편을 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에서는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을 불의에 호출시키고 현지에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을 완성절망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하늘 초병들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비행편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도 필요없다는데 대해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제 통신, 인베트뉴스통신, 로씨야 24TV방송, 연베트TV방송, 멘드르TV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신화매일진진》, 《메이징일보》, 중앙TV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필리핀 《연진》, 안바신 《어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미》, 이란의 일나통신과 나이세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공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라네트홈페이지, 슬로벤스키의 인라네트홈페이지 kkt.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 숭고한 영상

평명성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가 인라네트홈페이지에 투기하였다.
베네수엘라공산당은 12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미래를 위한 한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를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전국적범위에서 조직할것이라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그이의 한생애 판공된 불같은 애국정신이었다.
김정일명도자의 생애는 오늘보다 배일을 더 중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한생이었다.
지난 세기 말엽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고 류예없는 자연재해들까지 겹쳐 조선인민이 최악의 시련을 겪을 때 김정일명도자에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위임없이 걸으신 어기에 그이의 특출한 위인적품도가

【조선중앙통신】

